



[마켓·부동산]
정영채 대표
NH투자증권
사장 내정
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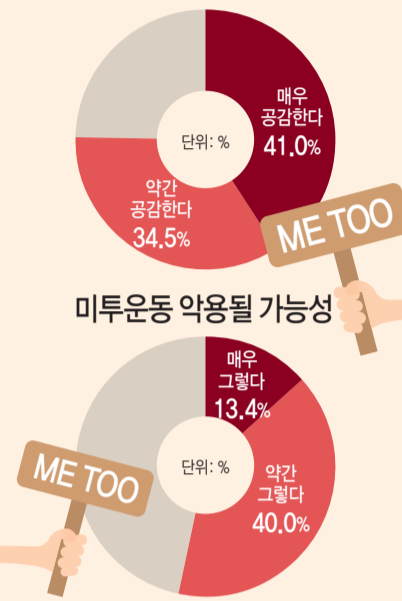
Life

[유통]
서울디자인재단
헤라패션위크 통해
신인디자이너 지원
니



확산되는 ‘미투’에 성인 50% “악용 우려도 있어”

미투운동 취지에 얼마나 공감하는가



*성인남녀 3892명 대상 '미투운동' 설문조사. 자료/인크루트

남녀 75% '미투운동' 취지 공감 정치적 이용 등 악용 가능성도

‘미투(Me Too)’ 운동이 사회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미투 운동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악용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6일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시장조사기관 두잇서베이와 함께 국내 성인 남녀 389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미투 운동’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 응답자의 53.4%가 ‘미투 운동이 허위 사실 유포나 정치적 이용 등 악용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전혀 그렇지 않다’는 답변과 ‘별로 그렇지 않다’는 답변은 각각 8.9%, 3.7% 수준에 불과했다.

하지만 응답자의 상당수는 우리나라 성

범죄 및 성폭력 문제를 ‘심각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실제 이에 대한 설문에서 ‘매우 심각하다’(55.5%)와 ‘약간 심각하다’(30.2%)는 응답이 많았고, ‘별로 심각하지 않다’(2.5%), ‘전혀 심각하지 않다’(0.8%)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응답자들의 상당수가 성범죄 및 성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있었다. 조사결과 ‘나도 성폭력 및 성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응답에서는 59.4%가 ‘그렇다’고 답했다.

미투 운동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미투 운동의 취지에 얼마나 공감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75.5%가 ‘공감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미투 운동이 성범죄와 성폭행 피해 예방에 효과적인 것’이라고 보는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68.8%가 ‘그렇다’고 답했다.

한편, 미투 운동의 동참 여부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전체 3892명 중 8.1%에 해당하는 312명만이 ‘참여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향후 미투 운동에 동참 또는 지속 참여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44.3%가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그렇다’와 ‘아니다’라고 답한 비율은 각각 33.9%, 21.0%였다.

서미영 인크루트 대표는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여성 폭력을 뿌리 뽑아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지만, 거짓 폭로나 2차 폭력 등과 같은 부작용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회적 여건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택시 이어 지하철요금도 오르나... 하반기 공공물가 ‘들쭉’

지하철 요금 지방선거 후 인상 논의 기본요금 200원 올린 1450원 계획

6·13 지방선거 이후 수도권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추진될 전망이다.

6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내년 지하철 기본요금을 200원 인상하는 방안을 ‘2017~2021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통해 서울시에 건의했다. 성인 기준 편도 1250원인 기존 요금을 1450원으로 올린다는 계획이다.

서울 지하철 요금은 2015년 6월 1050원에서 1250원으로 200원 오른 뒤 3년째 유지되고 있다. 이전 인상 시기가 2012년 2월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올해 요금 인상이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교통공사가 내세우는 요금 인상 근거는 고령화다. 65세 이상 노인 무임승차가 늘어 수익 증가가 미미한 상황에서 인건비 등 경비 증가로 적자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공사의 2016년 당기순손실은 3850억원이다. 서울 지하철 수송



2호선 삼성역에서 시민들이 지하철 개찰구를 통과하고 있다.

/뉴시스

원가는 1인당 1442원(2017년 기준 잠정치)인데, 평균 운임은 942원으로 원가 대비 65%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서울 지하철은 수도권과 연결돼 있어 독자적인 요금 인상이 어렵다. 요금을 올리려면 경기·인천 철도공사와 협의해 운임 조정계획을 세워야 한다. 인천교통공사는 인천 지하철 1~2호선 기본 요금을

1250원에서 200~300원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수도권 전철기관 협회가 끝난 뒤에는 시민 공청회와 시의회 의견 청취, 물가대책위원회 등 절차가 남아있다.

지하철은 수송원가 분석과 이를 위한 연구용역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아, 요금 인상 추진 속도가 버스·택시보다 상

대적으로 빠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시는 택시 요금 인상 여부도 논의하고 있다. 2013년 이래 5년째 동결중인 택시요금 인상을 위한 ‘택시 노사민정정협체’가 이달까지 심도깊은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택시 요금은 지방선거 일정상 올 하반기 진행될 전망이다.

시는 기본요금을 3000원에서 최대 4500원까지 올려 25% 인상하는 방안과 기본요금을 3000원에서 3900원으로 15% 가장 올리되, 택시 기사가 회사에 내는 사납금을 동결시켜 택시 기사의 실질적 소득을 증대로 이어지게 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경기도 역시 택시요금 인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연구용역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수도권 대중교통비에 이어 상·하수도 요금 인상도 추진될 경우 하반기 공공물가가 가계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범종 기자 joker@

서울, ‘유기동물 예방 중성화’ 전국 첫 시행

애니멀호더 설득·지원할 것

서울시가 ‘유기동물 예방 중성화’ 사업을 전국 최초로 실시한다. 개체수가 늘어나 관리되지 못하고 유기되는 동물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민간과 협업체계를 통한 선제적인 중성화로 ‘애니멀 호더(Animal hoarder)’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공중보건문제가 될 예방하는 모범사례를 제시하겠다고 6일 밝혔다. 애니멀 호더는 자신의 능력으로 키울 수 있는 동물보다 많은 동물을 사육해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동물유기 위



서울시 마포구에 유기된 동물들.

/서울시

험군’으로 풀이된다.

시는 서울특별시수의사회,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리와 협업체 유기동물 예방 중성화를 본격 추진한다.

시의 유기동물 예방 중성화 사업의 첫 대상은 마포구에 거주하는 김모 씨다. 그는 중성화 수술 없이 키운 유기동물이 30마리를 넘자, 관리와 소음 민원에 부담을 느끼고 지난 1월 개 12마리를 상자에 담아 유기했다. 김씨는 지난해에도 유기견을 키우다 버린 적이 있다.

시는 그가 사육하는 33마리의 개에 중성화수술과 입양을 지원하고 전문상담을 이어갈 계획이다. 서울시수의사회 마포구분회는 자원봉사 수의사들이 6일 김씨가 사육 중인 개들에 대한 중성화를 포함한 건강진단, 백신 접종, 동물등록을 지원한다.

이들은 지난 2월 개 3마리에 대해 이미 중성화 등을 실시했다. 나머지 사육중인 개에 대해서도 보호자와 협의해 진행할 계획이다.

동물보호단체 카리는 애니멀호더를 설득해 중성화수술을 받도록 하고 동물 입양을 연계해 사육관리가 가능하도록 돕는다.

시는 앞으로 동물보호 감시원을 통해 소유자가 적절한 동물 수를 유지하고 동물관리를 하는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내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동물소유자는 증가하는데 동물유기 위험군에 대한 제도가 전무한 상황에서 국내 최초로 민·관, 전문가의 협업체로 해결한 사례를 제시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범종 기자